

유희를 통한 정치적 실천과 성소수자 집단정체성의 변화: 오사카(大阪)의 한 오키나와(沖繩) 전통무용 동호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수미**

| 목 차 |

I. 들어가며	리 겹의 가시성과 비가시성
II. 연구의 배경: 일본 사회의 규범적 이성애와 성소수자들의 비가시성	V. 비정치적 유희에서 집단 정체성의 형성으로: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VI. 결론
IV. 잠재 불명예자의 낙인 관리: 여	

| 논문요약 |

21세기 일본 사회에서는 동성애적 실천을 정치와 무관한 개인의 취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로 보는 입장과 보편적 인권 관념에 기반하여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상반되는 입장이 과도기적으로 혼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오사카의 무용동호회 텡가라(가명)의 사례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이 공동된 취미생활, 사고, 연행 등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며, 점차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민족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유희가 어떻게 집단적인 정체성과 정치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텡가라는 회원들에게 일차적으로 다른 게이 남성들과의 사교와 취미생활을 위한 유희의 장에 가깝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편견이나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 이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2014)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조교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의 전략적인 이동, 코드스위칭을 통해 자신들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정도를 조절한다. 또한 주류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패러디한 농담과 말투, 제스처 등을 통하여 동성애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다지는 데 쓴다.

평소 주류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을 피해 온 이들에게 텡가라가 출연하는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는 불안감과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경험이다. 퍼레이드 참여과정은 회원들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진에 참가하는 경험 자체, 보여질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적인 공간에서 함께 걷는 실천을 통해서 유희와 재미가 기반이 된 텡가라의 활동은 게이, '성소수자'라는 집단적인 정체성과 자신감의 강화로 이어진다.

▪ 주제어: 성정치, 정체성, 유희, 코드스위칭, 가시성과 비가시성

I. 들어가며

일본 사회에서 비이성애적 욕망의 표현과 실천은 현대 사회의 성소수자 운동과 연구의 주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구미 사회와는 역사적으로 다른 궤적을 밟아왔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박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소수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반차별 운동은 1990년대까지 성소수자 당사자들로부터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일본의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은 ① 실질적인 성소수자 억압이 미약하고(Lunsing 2005b, 143-148), ② 일본인들에게 이슈를 막론하고 저항적 정치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 있으며(Summerhawk et al. 1998, 14), ③ 섹슈얼리티를 '지향'이나 '권리'와 분리된 '놀이'와 '행위'의 측면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일본의 사회분위기에서 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McLelland 2000, 222-240)는 점 등을 들어 성소수자 반차별운동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성소수자 운동단체의 활동과 인터넷의 사용 증

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달과 주류 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의 가시화,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미디어, 정치운동 등을 통한 국제적인 교류 등으로 인해, 취미가 아닌 ‘성적 지향’으로서의 성적 정체성과, 인권의식에 기반한 LGBT¹⁾ 담론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에 도쿄(東京)에서 처음 시작된 레인보우 퍼레이드(レインボー・パレード) 등의 행사가 도쿄, 오사카, 삿포로(札幌) 등의 대도시에서 매회 개최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법적인 개정에 이르지지는 않았으나, 2015년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수준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²⁾

이 논문은 간사이(關西)지역 동성애자 남성들의 오키나와 전통무용 동호회인 텡가라(ティンガーラー)³⁾의 사례를 민족지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이성애적 성적 지향과 실천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이 혼재하는 21세기의 일본 사회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공동의 취미생활을 통하여 성소수자로서의 집단정체성을 새로이 깨닫고 정치적 실천에 참여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① 구미 사회나 현 한국 사회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탄

-
- 1) LGBT란 성소수자의 통칭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bisexual), 트랜스젠더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최근 성소수자 내부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강조되면서 LGBTQ(생물학적 성, 성적정체성 표현, 성적 지향의 불일치를 뜻하는 ‘queer’의 Q가 포함), LGBTQIPA+(pan sexual, intersex, asexual, 그 이외의 가능한 성적 지향을 포함) 등으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결함을 위해서 LGBT로 통칭하기로 한다.
 - 2) 2015년 7월 오사카시의 요도가와(淀川)구에 이어 오키나와의 나하시(那覇)시가 ‘성적 소수자 지원 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의 교육, 상담창구 마련 등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安藤健二 (2015), “世田谷區も同性パートナー認定開始 7組に受領証 ‘どんどん廣まって欲しい,’” http://www.huffingtonpost.jp/2015/11/05/setagaya-partnership_n_8476616.html. (2016년 1월 23일 검색)]. 또한 11월 도쿄의 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가 커플의 서약에 바탕하여,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구청 레벨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현재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동성애자의 결합을 공인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해당 지자체의 장들도 이러한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법개정의 논의에 연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琉球新報』 2015/06/19).
 - 3) 이 연구에 나오는 단체와 개인의 이름(별명을 포함)은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하였다. 오키나와 방언으로 은하수를 의미하는 ‘텡가라’라는 가명은 같은 단체의 도쿄지부를 연구한 砂川秀樹(2010)의 연구에서 빌려온 것이다.

압이나 혐오가 직접적이지 않고, 비이성애적인 성표현에 비교적 관대한 듯이 보이는 일본에서, 규범적 이성애(heteronormativity)는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압력으로 경험되며, 성소수자를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왔는가? ② 그러한 규범적 이성애의 압력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안전하게 성적 지향을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시성(visibility)과 비가시성(invisibility) 사이를 오가는가? ③ 일차적으로 유희와 사교를 위해 텡가라에 가입한 회원들이 일상적인 연습과 LGBT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의식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라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일본 사회의 규범적 이성애와 성소수자들의 비가시성

법적인 제재나 종교, 윤리적인 규탄, 혐오발언이나 물리적인 폭력 등으로 동성애 혐오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사회의 관찰자들이 보기에, 일견 일본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표현을 허용하는 사회로 보인다. 소프랜드 등의 성산업이 변화가나 쇼핑가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 존재한다거나, 편의점 가판대의 잡지나 TV 등 미성년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대중매체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 미소년들의 연애를 다룬 장르인 야오이 만화(McLelland 2000, 54-55)나 다카라즈카(Robertson 1998)와 같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극단이 여성 팬들에게 컬트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매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 드랙 퀸, 혹은 트랜스젠더 연예인 등의 존재가 그 가시적인 예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 사회의 경우 이성애적 규범에서의 이탈을 음성적인 곳에서 묵인하며 일부 허용함으로써 통제해 왔고, 성소수자들은 주류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려 왔다. 이 장에서는 일본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실천과 담론을 둘러싼 역사적 흐름과, 현대 일본의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주류사회의 태도와 성소수자들의 행동패턴을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사회의 동성애를 둘러싼 성담론의 역사적 변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근간이 되어 있는 구미 문화권에서는 이성애에서의 이탈을 자연 혹은 신의 질서를 범하는 최악으로 보는 견해가 동성애 혐오의 바탕이 되며, 또한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장치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이나 동정을 호소한 19세기 후반의 동성애 옹호운동(homophile movement)이나, 20세기 후반 게이 해방운동 등 보편적인 개인의 인권 개념에 기반한 성적 소수자의 저항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인종이나 여성 등의 다른 소수자 반차별운동과 맞물려 현재의 LGBT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야고스 2012, 41-93).

반면 일본의 경우 근대 이전의 문학, 대중문화, 사료 기록 등을 보면, 이성애에서 이탈하는 욕망이나 실천에 대한 엄격한 금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분 질서의 교란이나 범죄, 사무라이의 기강 해이 등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동성애 자체에 대한 제재가 행해지지 않았다. 특히 남성이 주체가 된 성적 실천은 대상을 불문하고 취미(趣味, 슈미)와 놀이(遊び, 아소비)의 사적인 영역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었다(McLelland 2000, 20-24). 이 시기의 에로티시즘은 ‘쇼쿠(色)’라는 용어로, 근대적인 의미의 사랑 혹은 가족 구성의 논리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었다. 남성간의 성적 결합은 ‘단쇼쿠(男色)’라 하여 ‘조쇼쿠(女色)’에 대비되는 하나의 취향으로 간주되거나,⁴⁾ ‘슈도(衆道)’라 하여 사무라이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 배우고 완성되어야 하는 ‘길(道)’로 간주되기도 했다(Pflugfelder 2000, 23-96). 이러한 동성애의 미화는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의 문학작품 등을 통해 전후에도 일부

4) 이에 대해 근대 이전의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반드시 가치중립적이지는 않으며, 다소 기이한 취향이나 (가족을 유지하고 후계자를 생산하는) 이성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砂川秀樹 2015, 251-255).

이어졌다(McLelland 2000, 27-31).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병리학과 같은 비정상의 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성과학적 관념이 도입된 메이지(明治) 연간(1868-1912)에 들어서이다(McLelland & Suganuma 2010, 198). 근대 문명국가 설립을 목표로 서구열강의 시선을 의식하였으며, 슈도는 부도덕하고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계간법(鷄姦法, 1872-1880) 등 남성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메이지 민법(1889)과 호적제도(1871)를 통해 이성애적 일부일처혼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확립되었다(McLelland 2005, 98-100). 또한 이 시기에 독일에서 소개된 성과학(sexology)에 의해 성적인 지향, 욕망과 실천을 이성애와 동성애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변태성욕’, ‘도착’ 등의 병리학적인 용어로 동성애를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틀은 근대의 서구 성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법제도나 성과학 등에 의해 확립되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대 시기의 가족규범이나 성과학적 담론은 현대 일본 사회의 동성애자들을 제약하는 규범적 이성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2. 현대 일본 사회의 규범적 이성애, 성소수자의 침묵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비교적 약한 일본 사회에서 이성애의 헤게모니는 어떻게 영속되고 성소수자들을 침묵하게 하는가? 선행연구는 일본 사회의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규범, 그리고 직장(공)과 가정(사)이라는 이분법 아래에서 엄격히 구분되고 재생산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사회문화적인 성규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메이지 민법과 호적법 등의 개혁이 재정비된 근대 일본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개개인이 아니라 일부일처의 혼인으로 구성된 가구였다. 남녀의 엄격한 성분업을 토대로 작동하는 가구의 주된 기능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즉 남편과 자녀)의 유지, 육성과 세대 영속성의 유지였다.

5) ‘homosexuality’의 역어인 ‘도세아이(同性愛)’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혼인은 원칙적으로 일부일처의 이성애적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남녀의 낭만적이거나 성적 친밀함은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상형으로서의 가족모델은 전후의 일본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보다 민주적으로 변하고, 부부 간의 낭만적, 성적 친밀함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었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의 의사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혼인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완전한 사회적 인격을 성취하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개인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미성숙하고 윤리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함의”(Edwards 1989, 124)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의 경우 고용의 성차별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독신생활을 영유해 나가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남성의 경우 일정 나이를 지나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적 성인으로서 책임감이나 안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직장에서의 승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McLelland 2005, 98-100; Dasgupta 2005, 172-180).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독신으로 남는 개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Ronald & Alexy 2011, 1-24)하고, 결혼과 자녀 생산은 사회적 당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랑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나, 사회적인 인정,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결혼을 하는 개인이 다수 존재한다. McLelland(2000, 102-109)는 게이 잡지에 등장하는 게이 남성, 동성애 혹은 이성애자 여성들의 결혼상대자를 찾는 광고를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은 비록 상대방과의 낭만적, 육체적 사랑에는 관심이 없지만, 상호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압력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정상인, 혹은 성인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규범적 이성애는 공적인 영역, 특히 직장문화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전후 일본 사회의 주도적인 남성상이었던 ‘사라리만(サラリーマン, 샐러리맨)’의 이미지, 즉 ‘대기업 남성성(corporate masculinity)’(Allison 1994, 91-113; Dasgupta 2000, 192-196)은 그 안에 이성애를 내포하고 있다. 적령기에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 남성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늘어나지만, 혼인을 통해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이

라는 책임을 다하는 한 가정 바깥에서의 성적인 쾌락 추구(성산업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대기업과 같은 직장에서 고객이나 영업파트너의 접대나 남자 직원들 간의 연대를 위해 호스테스 바나 소프랜드 등의 (이성애에 기반한) 성산업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공공연히 행해진다. 이러한 관행은 직장의 핵심 인력 중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한편, 남성의 규범적 이성애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Allison 1994, 91-101; 124-141). 이성애를 전제로 한 직장동료들과의 결혼과 연애, 성에 대한 대화는 이성애자들에게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동성애자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비정상성을 환기시키며,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McLelland 2005, 100-105).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⁶⁾을 뭉뚱그리는 고정관념은 동성애자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된다(McLelland 2000, 120-122).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오카마(おかま)’라는 속어가 있다. 속이 깊은 술을 뜻하는 이 말은 엉덩이, 혹은 남성 성교를 암시한다(Lunsing 2005a, 81). 동성애자 남성, 트랜스 퀴, MtF(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 등을 가리지 않고 다소 경멸적인 어감으로 쓰이는 이 속어는, 이들의 생물학적 성(sex),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젠더(gender), 성적인 지향(sexuality)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 범주로 뭉뚱그리며, 이들이 변태성욕자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대중매체에 흔히 등장하는 화려한 의상과 화장, 그리고 과장된 여성스러움을 말투나 제스처로 표현하는 오카마 연예인들은 비이성애자들이 기이하고,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반면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야오이 만화는 남성성이 최대한 제거된 미소년들의 사랑을 낭만화하고 이상화시킨다. 다수의 동성애 남성들은 성적인 대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관습적인 성관념이나 행동양식에서 이성애자 남성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어

6)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일본에서는 ‘성동일성 장애(性同一性障害)’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변태’로 취급하는 관점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장애’라는 비정상적인 틀에 가두어 두었다는 비판이 있다.

럽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억압에 존재하지 않는 대신, 가족이나 직장 규범, 세켄(世間, 세간의 상식)의 암묵적인 압력(Lunsing 2001, 1-34)이 규범적 이성애를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기제이다. 쾌락을 위한 성을 재생산을 위한 성과 분리하고, 의무로서의 가족제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놀이와 취미의 영역에 두는 일본의 관행은 결과적으로 비이성애적인 성표현과 쾌락 역시 일상의 영역에서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웃이나 학교, 직장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개인의 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에서의 이탈은 경멸과 소문 등으로 통제되는 반면, 연예계나 대중매체, 혹은 유흥업소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규범적인 이성애와 가족제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성욕의 추구나 성적인 이탈을 묵인하는 사회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비이성애적인 욕망이나 실천이 그 행위자의 정체성 형성에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운동이나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소수자로서의 차이를 숨기고 침묵하는, 즉 이성애자인 척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전략을 택한다. 공연히 갈등을 일으켜 눈에 띈다며 공개적으로 동성애 권리신장 운동을 벌이는 OCCUR와 같은 성소수자 단체들을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비난하는 사례도 있었다(砂川秀樹 2015, 246-247).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이 연구는 연구자가 2007년 8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에 오키나와 전통 무용과 음악 실천을 통한 차이와 정통성의 정치라는 주제로 오사카시와 인근 간사이지역에서 실시한 인류학적 현지조사 중 일부를 분석한 것이다.⁷⁾ 텡가라와의 만남은 다소 우연적인 경위로 이루어졌으나, 이들과의

7) 텡가라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는 2008년 8월-10월의 3개월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만남은 연행예술을 통한 소수자 정치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텡가라의 연습과 뒷풀이, 공연 행사 등의 참여관찰 기록과 회원들과의 면담,⁸⁾ 그리고 SNS의 커뮤니티 페이지와 개인 페이지의 게시물 등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자료는 2008년 당시 일본의 SNS인 믹시(ミクシィ, <https://mixi.jp>)의 텡가라 커뮤니티 페이지와 회원들 개인의 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최근의 활동은 멤버들의 사용이 증가한 페이스북(facebook)에서 확인하였다. 신분노출에 민감한 연구대상의 특성상, 연구대상 개개인에게 연결될 수 있는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포스팅의 링크는 논문에 밝히지 않았다. 또한 2015년 7월에 오사카를 방문하여 연습과 뒷풀이에 참여하였으며,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텡가라의 그간의 활동, 레인보우 퍼레이드나 일상에서 회원들이 체감하는 일본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양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일본에서의 성장, 유학 경험을 통해 일본어 구사에 불편이 없어 모든 조사는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텡가라의 주요활동인 에이사(エイサー)는 오봉(お盆) 명절에 행하는 조상의례에서 유래한 오키나와의 민속무용으로, 마을의 청년들이 오키나와 민요와 산신 반주에 맞춰 남성들은 북을 치거나 카라테 동작과 비슷한 춤을 추고, 여성들은 나긋나긋하고 여성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며 마을을 도는 집단무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대중문화와 관광 속에서 오키나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오키나와의 이국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볼거리로 관광명소에서 수시로 연행되거나, 일본 본토에서도 에이사를 연행하는 일본인 주도의 그룹이 다수 생겨나는 등 에이사는 일본

텡가라의 멤버와의 관계는 2007년 조사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를 위한 분석틀도 14개월간의 다른 오키나와 전통무용, 음악을 연행하는 다수의 집단의 비교연구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 8)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회원 각각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아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기에는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인터뷰는 주로 연습 뒷풀이나 쉬는 시간 등 회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대화를 꺼린 회원도 있고, 일대일로 질의 응답을 하는 사이에 옆에서 보고 있던 회원이 즉흥적으로 코멘트를 하거나 대화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아 흥미로운 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반면 표준화된 자료를 구하기는 힘들었다. 연구자에게 자신의 사생활이나 텡가라 활동의 계기, 자신에게 텡가라가 가지는 의미 등을 심도 있게 대답해준 회원은 7-8명 정도이다.

인들의 소비 및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팅가라는 ‘성소수자의 에이사 단체(セクシャル・マイノリティのエイサー団体)’를 표방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즉 동성애 혐오가 아닌)⁹⁾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게 회원자격을 열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동성애자 남성이었다.¹⁰⁾ 말투나 몸짓, 소지품 등으로 과장된 여성성을 드러내는 드랙 퀸(drag queen)¹¹⁾ 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외모나 옷차림, 행동거지에서 동성애자라거나 남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팅가라가 처음 결성된 것은 2005년 신주쿠 니초메(新宿二丁目)¹²⁾에서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이벤트인 도쿄 레인보우 페스티벌(東京レインボー・フェスティバル)¹³⁾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애초에 도쿄에서 시작되어 2008년까지 간토(關東, 이전의 도쿄지부), 간사이, 오키나와의 세 지부로 늘어났으며, 참여하는 행사도 도쿄 프라이드뿐 아니라,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關西レインボー・パレード), 삿포로 레인보우 마치(札幌レインボー・マーチ), 플러스+(PLUS+, HIV와 AIDS에 대한 홍보를 주로

9) 레인보우・에이사 ティンガーラー 關西支部, <http://mixi.jp>. (2008년 10월 20일 검색) 각주 3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명을 가명 처리하였으므로 커뮤니티 페이지 제목도 같이 변경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상세한 링크는 밝히지 않았다.

10) 이 글에서 동성애(homosexuality, same-sex sexuality)란 반드시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성적 지향성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과 같은 유동적인 다양성을 보이며, 연구자가 회원들의 구체적인 성적 지향을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양성애자도 존재하는 등 회원들의 성적 지향도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텡가라의 활동 중에는 회원들이 남성에 대한 성적 관심만을 표현하였다.

11) 여성적인 복장과 화장을 하고 과장된 여성적인 제스처나 말투로 행동하는 남성. 여장남자.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의 외양(의복이나 행동거지)을 따르는 것을 ‘드랙(drag)’이라고 하며, 여성의 경우 ‘드랙 킹(drag king)’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반드시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다.

12) 신주쿠는 각종 요식, 유흥사업 및 성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주쿠 니초메는 게이, 레즈비언 바 등 동성애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사업이 밀집되어 ‘게이 남성들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McLelland 2000, 28; 砂川秀樹 2015, 22-31).

13) 현재 도쿄 프라이드(東京プライド)로 개칭.

하는 행사) 등 LGBT의 권리향상을 추구하는 각종 행사로 확대되었다. 2010년부터는 대만의 남성 동성애자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했으며, 대만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LGBT 행사에 교차 출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기원이나 활동과는 별개로, 대다수의 회원은 성소수자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딱히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간주하지도 않았다. 정치나 차별 같은 ‘머리 아픈 주제’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친구들을 보려고, 혹은 에이사가 좋아서 가입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HIV/AIDS 예방 등 다른 성소수자 이슈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한두 명 있었지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차별이나 인권, 현실 변화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대화는 회원들의 사생활, 농담, 에이사 등에 머물렀다.¹⁴⁾ LGBT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공연 순서나 연목, 안무의 조정 등 퍼포먼스 자체에 화제가 집중되었다. 또한 이들은 게이 남성을 주된 참가자로 하는 나이트클럽 이벤트 같은 보다 사적이고 유흥 중심의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는 일도 있었다. 에이사 공연 대신, 남성들이 아래 속옷인 훈도시(褌)만 입고 서로 물을 끼얹는 간토지역의 하다카마츠리(裸祭り)¹⁵⁾에는 매년 단체로 참가하였다.

팅가라 회원의 종족적 구성은 일본인¹⁶⁾이 압도적이다. 2008년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 참석자의 경우, 오키나와인인 도쿄 지부 리더와 간사이 지부의 재일 코리언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조사 당시 오사카의 오키나와 무용, 음악 단체, 행사들은 참여자의 구성에 따라 그 성향이 나뉘었다. 오키나와 출신자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은 종족적 정체성의 추구나 반차별운동과의 연관성 등 다소 정치적 성향을 띠었다. 반면 일본인 주도의 단체들은 오키나와를 에이사, 민요, 오키나와 음식과 주점, 관광 등 대체로 유희와 소비의 대상으로 접근하며, 심층적인 오키나와인의 역사나 사회현실(역사적인 오키나와 차별이나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오키나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4) 이러한 특징은 2015년 추가조사에서도 관찰되었다.

15) 남성들이 아래 속옷인 훈도시 차림으로 참여하는 축제.

16) 이 논문에서 ‘일본인’을 명시할 때에는 오키나와인과 대비되는 개념의 종족적 일본인(ethnic Japanese)을 가리킨다.

팅가라의 오키나와 문화 소비에 대한 경향은 일본인 주도의 단체들 중에서도 두드러졌다.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주변적인 동성애자들의 자의식 속에 일본 사회에서 주변적인 존재인 오키나와의 문화가 연상된 것이라거나(砂川秀樹 2010, 19),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에이사의 춤사위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성적인 어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나, 회원들은 오키나와의 주변성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성적인 취향이라는 부분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취향이 단일한 것은 아니라며 반응이 엇갈렸다. 이들은 오키나와의 전통무용으로서 에이사의 정통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공연으로서의 완성도, 즉 무대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인가를 추구하였다. 볼거리를 위해 에이사와 무관한 춤사위를 집어넣는 등 안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적인 예로 오키나와 출신의 여성 아이돌 그룹 맥스(MAX)의 노래인 ‘니라이 카나이(ニライカナイ, 오키나와 전설속의 이상향)’에 맞춘 안무를 들 수 있다. 북을 든 무용수들은 배경에서 오키나와 민요 대신 경쾌한 댄스뮤직에 맞춰 북을 치고, 전면에서는 맨손의 무용수들이 일본의 댄스클럽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집단무로 유행하는 파라파라 댄스(パラパラダンス)를 선보였다. 이는 나이트클럽의 ‘게이 나이트’ 행사에 공연을 의뢰받아 급조한 안무였는데, 회원들과 관객의 호응으로 게이 에이사 단체로서의 텡가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고정 연목이 되었다.

요컨대 텡가라는 오키나와 전통무용 동호회로서보다는 남성 동성애자의 취미, 친목 단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오키나와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소수의 열광적인 에이사 팬을 중심으로 단체가 형성되고, 나머지 회원들은 게이 남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에이사라는 활동도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원들 각각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치의식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McLelland (2000, 32-37)는 90년대 이후의 ‘게이 붐’(대중문화, 소비문화에서 게이를 고객으로 한 틈새시장의 급증)을 언급하면서, 수입이 있는 성인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 부양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 자신의 여가생활에 쓸 돈과 수입의 여유가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런 경향을 반영하듯 텡가라의 회원들은 연습 후에 뒷풀이를 하고 게이 바나 댄스클럽을 방문

하거나, 오키나와 음악 공연, 오키나와 음식을 소비하고, 또 오키나와나 일본 각지, 대만 등으로 함께 여행을 가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IV. 잠재 불명예자의 낙인 관리: 여러 접의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회학자 Goffman(1963, 41-104)은 신체(기형, 장애 등), 기질 혹은 인격(전과, 정신이상, 동성애, 정치적 극단주의 등), 소속(민족, 인종, 종교, 성 등)에 있어 주류사회가 결점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 보통, 자연스러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낙인(stigma)을 지닌 개인들이 자신의 오염된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개인이 가진 낙인이 타인이 한눈에 판명할 수 있는가(뚜렷한 신체기형, 피부색 등),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가(전과, 정신질환, 동성애 등)에 따라 ‘불명예자(discredited)’와 ‘잠재 불명예자(discreditable)’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차이에 따라 주류사회가 규정한 낙인을 가지지 않은 ‘정상인(the normals)’이 낙인을 가진 개인을 대하는 방식과 그 개인의 행동범위에도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불명예자는 자신의 낙인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을 대하는 주변에 어떻게 응수할지를 정해야 하지만, 잠재 불명예자는 자신의 낙인을 드러낼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어느 공간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다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한편, 그에 따르는 부담 역시 자신이 져야 한다.

주변의 경멸, 파산, 실직 등은 동성애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이나 살해 등에 비해서는 가벼울지도 모르지만,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엄연한 위협이다. 게이 남성들은 상상되거나 실재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을 감추고 보이지 않게 숨는¹⁷⁾ 전략을 택하

17)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행동한다는 뜻의 ‘가쿠레루(隠れる, 숨다/숨기다)’를 써서 ‘가쿠레키리시탄(16, 17세기 기독교 박해를 피해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던 기독교인)’이나 ‘가쿠레조센진(조선인임을 숨기고 일본인처럼 행세하는 이)’이라는 표현이 있다.

는데, 이는 자신의 낙인을 감추고 ‘정상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뜻의 ‘통하기(passing)’(Goffman 1964, 73-91)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연애나 우정 등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동성애자 남성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원하지 않는 아우팅이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는 이들이 안전함과 친밀성의 추구라는 상반된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다양한 공간(물리적인 공간과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을 오고 가면서 언어나 행동을 조절하는 코드스위칭(code switching)을 구사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동시에 같은 게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마치 눈앞에 숨어 있는 것(hidden in plain sight)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1. 텡가라와의 만남: 성소수자의 비가시성과 숨기 전략

연구자가 텡가라를 만난 과정도 성소수자의 비가시성을 조장하는 일본 사회의 암묵적인 압력, 또한 주류사회가 소수자들을 보지 못하는, 혹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남겨준다. 조사 당시 연구자는 14개월에 걸친 참여관찰을 통해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의 수십 개가 넘는 오키나와 무용, 음악 관련 행사나 단체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물론,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들도 텡가라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조사 첫 주에 아키(アキ)라는 40대의 일본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오키나와 문화의 열광적인 애호가로 연구자가 조사 중인 행사나 단체에 다수 참가하였고,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찰과 의견을 보냈다. 그는 의사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본인 말에 따르면 ‘어른답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¹⁸⁾ 정반대 입장의 사람들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18) ‘어른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세컨, 즉 일반적인 상식에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키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숨긴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주제를 막론하고 다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

처신에 능했다. 언젠가 아키가 지나가는 투로 성소수자들로 이루어진 에이사 단체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나중에 연구자가 기억하고 소개를 부탁하자, 아키가 당황해하며 왜 소개하기가 곤란한지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편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며, 개중에는 여성혐오자도 있어서 연구자에게 거칠게 나오거나 여자를 데려온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그런 머뭇거림은 평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스스로 숨겨놓던 그의 태도와 너무 상반되었다. 연구자가 성소수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생활 보호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인류학자이자 유명한 게이 활동가인 옛 친구에게 신원보증까지 부탁해야 했다.

결국 허락을 받고 텡가라의 연습을 방문한 날, 아키의 경고 때문에 긴장했던 연구자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경계심은커녕 반가움과 호기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반기는 바람에 어리둥절해졌다. 회원들은 연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진짜 여자(リアル女性)’가 나타났다는 것에 더 흥미를 보였다. 그곳에서 아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불렀다. 별명 사용은 일상생활과 게이 세계를 분리하려는 시도로, 나중에 본명으로 다른 곳에서 아우팅(outing)¹⁹⁾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굳어진 관행인 듯했다. 연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한 연예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연구자에게 ‘안젤라’라는 별명을 붙였고, 연구자는 그 뒤로 계속 안젤라로 불렸다. 그들은 텡가라의 온라인 페이지에도 연구자를 초대했으며, 그날 밤에 바로 몇 명의 회원이 연구자에게 친구신청을 했다.

회원들의 개인 페이지를 들여다보던 연구자는 익숙하고도 낯선 하나의 프로파일에 당황하였다. 사진에 찍힌 뒷모습, 좋아하는 오키나와 가수, 취미 등 어느 것으로 봐도 아키가 틀림없는 이 남성은 이상형 남성의 신체 타입이며 성적인 선호 등을 마치 게이잡지의 데이트 상대 찾기 광고처럼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키가 게이였단 말인가? 그는 텡가라에 대해서도 ‘그들’, ‘도와준다’라는 식의 거리두기를 하고, 이혼경력, 자신의 아이,

는 것을 미성숙의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은 종족적 소수자들의 정치활동에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19)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폭로당하는 일.

사귀는 여자 등 아키가 밝힌 자신의 사생활에서 동성애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키가 보여준 행동은 일본의 대다수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이나 숨기 전략의 일반적인 패턴에 가깝다. 아키는 최근에 동성애적 성향을 깨닫게 된 경우로, 자신의 남성애에 대한 관심을 굳이 게이라는 정체성으로 연결짓지 않았으며, ‘어른이니까’ 사회생활에서 굳이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숨겼다. 이성애자 앞에서는 남자친구를 ‘가레시(彼氏, 그)’ 대신 ‘가노쥬(彼女, 그녀)’란 말로 지칭함으로써 게이라는 의심을 피하는 것 역시 동성애자들이 노출을 피하는 흔한 전략이었다(Summerhawk et al. 1998, 11). 그 뒤에 연구자를 만난 아키는 마지못해 자신이 남자에게 관심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연구자가 텡가라 활동에 수차례 참가하면서 여러 회원과 격의 없이 지내게 되자, 아키는 텡가라 회원들이 연구자를 받아들인 것이 마치 자기 일인 듯 기쁘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조사를 끝내고 일본을 떠날 때, 아키는 SNS에 1년 남짓의 연구자와의 만남을 회상하는 포스팅을 썼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투로 처음에 무심코 텡가라에 대한 얘기를 흘려놓고 연구자가 기억할까봐 한동안 진땀을 뺐으며, 관심을 돌리려고 열심히 둘러댔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집요하게 텡가라와의 만남을 추구하고, 결국 그 덕분에 자신이 텡가라와도 연구자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썼다. 처음 소개를 부탁받은 아키의 떨떠름한 태도와 상반되는 텡가라 회원들의 환영, 아키의 일기 등으로 미루어, 실은 아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그의 태도에 반영된 것이며, 연구자의 조사기간 동안 그가 좀 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긍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성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수자(이성애자)의 위치에 서는 연구자와 소수자(동성애자)의 위치에 서는 텡가라 회원들의 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왜 조사 초기부터 텡가라의 회원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텡가라를 만나지 못할 뻔하였는가? 이것은 소수자의 부재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성애자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가정했던, 이성애자인 연구자의 맹점에서 얼마간 기인한 것이며,

사회의 다수자가 소수자의 부재를 당연시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키의 고백에서 보듯, 이것은 단순히 연구자의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출을 꺼린 아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눈에 띄지 않도록 남아 있으려는 아키의 노력,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일상적인 전략은, 역설적으로 일본에서 이성애자로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즉 규범적 이성애의 압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방증이다.

아키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지 않으며, 성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90년대까지의 대다수 동성애자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다음의 대화는 레인보우 퍼레이드에서 만난 도쿄 지부 회원들의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소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B가 코멘트를 했다.

B: “그런 것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A가 게이이든 아니든, 교장선생님이나 남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A: “B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네. 하지만 난 상관없어요. 특별히 나 빠거나 숨겨야 해서 그렇다기보단, 그것(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나의 프라이버시니까, 남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신의 성정체성을 주변의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 본 B와, 그것을 정의감의 표현으로 간주하며 성적인 취향은 남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A의 선택은, 현재 일본의 비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사인 A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침묵하기로 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다수의 일본의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주저하는 이유로 ‘이상, 비정상’으로 보여질 것 같은 두려움, 가족, 친구, 직장 등의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砂川秀樹 2007, 199-202). 동성애자로 노출된 개인이 겪

을 수 있는 불이익이 단순한 조롱이나 무시, 험담 이상의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어느 날 텡가라의 연습 후에 연구자는 회원 두 명을 따라 함께 식당에 갔다. 실은 이 식당의 주인은 게이 남성으로, 자기 건물을 텡가라의 연습장으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텡가라와도 친분을 맺고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인 연구자의 존재에 대해 일행이 아무 설명 없이 자리에 앉자, 주인은 처음에 심상한 표정으로 눈인사를 나누었으나, 점점 불안해하며 우리 자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담당 서버 대신 직접 와서 서빙을 하면서 나의 행동을 살피거나 우리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연구자에게 “혹시 당신 작가나 저널리스트 그런 사람?” 하고 물었다. 연구자가 스스로를 연구자라고 소개하고 동석자 둘이 눈빛으로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자, 주인은 연구자에게 자신의 식당의 위치나 이름을 노출하지 않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과거에 자신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동성애자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떠나면서 주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식당이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단골도 다 잃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마주치자 나한테 침을 뱉더라고. 그리고 소문이 돌아서, 하나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했어.”

이렇게 암묵적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노출의 위협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끼리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2.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활용

텡가라는 자신들의 공연공간을 LGBT와 관련된 행사로 제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노출을 같은 성소수자나 성소수자에게 관용적인 이성애자들에게 제한한다. 이런 행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편 이들의 일상적인 야외연습은 이들이 ‘보이지 않음’ 동시에 ‘보임’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진다. 격주로 행하는 야외연습은 우메다(梅田) 인근 공원의 한 구석에서 벌어진다. 이 장소는 공원

의 출입구 하나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이 출입구로 걸어나가면 게이 바가 밀집하여 있다. 그래서 뒷풀이를 하기도 편리하지만, 게이 남성들이 게이 바를 드나드는 길에 텅가라의 연습장면을 지나치다 지인을 발견하거나, 이들이 게이라는 것을 눈치챌 가능성도 높다. 이성애자들이 보기에 단순히 한 무리의 남성들의 에이사 연습으로 보일 장면은 게이들의 하위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눈치챌 수 있는 보다 미세한 힌트를 깔고 있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이나 수염 스타일, 옷차림의 경우 이성애자들이 특이함을 느낄 수 없는 모습이지만 게이 잡지나 게이 서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르는 이들이 많다. 또한 회원들 사이에 잠깐잠깐 게이들의 특유의 말투나 제스처가 오고 가는 것을 동성애자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게이 남성이라면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다.

연습이 끝나고 회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거나 2차로 게이 바에 가기도 했는데, 장소를 이동하면서 어떤 장소에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주변의 타인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미세하게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철 안이나 식당의 입구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동성애를 화제로 삼거나 게이스러운 말투와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 좀더 남성적인 태도와 말투로 행동하였다. 반면 식당의 고립된 부스나 연회실 등 닫힌 공간에서는 거리낌없이 과장된 여성성 혹은 게이스러움을 표현하며, 동성애에 관련된 대화나 농담을 주고받았다.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고 스쳐지나가는 한적한 골목 같은 곳에서는 주변사람들과의 거리에 따라 그 정도를 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코드스위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들이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게이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터넷의 사용을 들 수 있다. McLelland(2005, 115)는 “인터넷이 게이 세계에 대한 무한대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젊은 게이 남성들은 십대 시절부터 게이 세계를 접할 수 있으며, 다른 게이 남성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진다. 이것은 인터넷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것이다”라고 썼다. 텅가라의 경우에도 SNS를 통한 회원모집, 연락사항 전달, 사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통 빈도는 연구자가 조사한 다른 어떤 민요, 에이사 단체와도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온라인 네트워킹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성소수자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 탓으로 보인다. 계급, 민족, 종교 등의 소수자들의 경우 그 조건은 개인이 속한 집단, 적어도 가족 단위에서 공유되는 것인 반면, 성적 소수자들을 소수자로 만드는 조건은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공유될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이며, 따라서 성소수자 개인들은 지역적으로 흩어지고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RIOJI & 砂川秀樹 2007, 198-202). 대도시에 거주하며 얼마간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소수자 개인들이 다른 성소수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인터넷은 이러한 개인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얻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조건 - 익명성 혹은 비가시성 - 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도시에서 접근성과 자원을 모두 확보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신과 성적 지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많은 게이 남성들이 아우팅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 자신들의 익명성을 지키면서 정보나 다른 게이 남성과의 만남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느끼는 안전함의 정도에 따라 노출의 정도나 면대면 접촉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게이 세계와 (성적 정체성을 숨긴 상태의) 일상의 세계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텡가라의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는 믹시에는 연구자가 조사한 다른 민요 교실이나 동호회, 에이사 동호회의 커뮤니티 페이지도 있었지만, 이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주된 연락사항을 주고받아서 페이지의 이용도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반면 텡가라의 페이지는 접속자와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텡가라는 지부 별로 커뮤니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회원들이 자신의 지부가 아닌 다른 지부의 페이지에도 가입해 있으며 자유롭게 포스팅을 올렸다. LGBT 행사나 사교모임 뒤에는 다수의 후기가 올라왔고, 이 포스팅에는 단 수 분, 수 시간 내에 수십 개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달렸다. 같은 행사에 참가한 다른 회원들이 서로 포스팅의 링크를 걸며 온라인상의 대화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들의 자신의 노출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 별명을 사용하고, 프로파일에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대신 그림이나 몸의 일부를 찍은 사진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믹시의 ‘아시아토(足跡, 발자국)’(자신의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의 어카운트를 역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로 누가 자신을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번은 자신의 일상적인 네트워크와 게이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사용하던 한 회원이, 게이 어카운트로 접속한 채로 하마터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뻔했다가 진땀을 뻘²⁰⁾ 내용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 회원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유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는 한동안 게이 커뮤니티를 떠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면대면 접촉이 없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SNS를 통한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은, 아우팅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게이들과의 사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게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체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상공간에서도 노출의 위험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완전히 긴장을 풀기는 어렵다.

3. 변태같이 굴기: ‘호모네타’와 코드스위칭, 이성애자와의 연대

팅가라의 멤버들은 사적-공적인 공간, 혹은 더 안전한 - 덜 안전한 공간 사이를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여 자신들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조절한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안에서는 과장된 게이로서의 페르소나를 유희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성애에서의 일탈을 주 내용으로 삼은 농담을 ‘호모네타(ホモネタ)’, 과장되게 여성적인 말투로 오카마들 사이에 사용하는 ‘오네고토바(オネエ言葉)’(Abe 2010, 6),²¹⁾ 일부러 행동이나 말로 자신들의 이성애에서의 일탈을 드러내는 것을 ‘호게루(ほげる)’라고 불렀다.

야외연습의 휴식시간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 대형 앞에 서 있던 리더가

20) 친구가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게이 어카운트를 방문해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다.

21) 일본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언어를 연구한 Hideko Abe(2010, 6)는 오네고토바를 “Queen’s Speech”로 번역하고 있다.

갑자기 허리와 엉덩이를 한쪽으로 쭉 빼면서 복채를 들고 있던 손을 나긋나긋하게 옆으로 뻗었다. 마치 글래머의 여자 댄서나 드랙 퀸이 무대 위에서 취할 것같은 여성적이고 유혹적인 동작을 취한 것이다. 그것을 눈치챈 회원들이 키득거리는 동안, 한 명이 과장된 태도로 손가락질을 하며 마치 아이같이 높고 새된 목소리로 “엄마아아아아! 저기 이상한 사람(変な人)²²⁾이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을 더 많은 회원이 웃기 시작했고, 리더는 소리를 지른 하니(ハニ)라는 회원을 돌아보고는 무시하듯 “남 말하고 있네(お前が言うか)”라고 한 마디 던져 연습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리더는 평소의 차림이나 태도가 여성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에이사를 출 때에는 대부분의 회원에 비해 정확하고 절도 있는 춤동작에서 그의 남성성이 두드러져 보였다. 반면 리더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외친 하니는 드랙 퀸이었다. 여장을 하지 않은 평소 연습에서도 목소리나 말투, 동작, 온통 분홍색으로 뒤덮여 있는 소지품 등으로 과장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큰 몸집이나 굵은 눈썹, 턱수염과 대비되어 드러내는 오카마스러움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즐기는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리더의 여성스러운 동작이나 하니의 과장된 지적, 그리고 리더의 응수는 다분히 청중을 의식하고 웃음을 유도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다.

공통의 경험이나 관심을 가지고 농담을 하며 유대감을 주고받는 내부자 간의 농담은 어떤 단체나 혼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게 다양한 오키나와 무용과 민요 단체를 만나온 연구자가 텅가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성애, 드랙 퀸, 트랜스젠더를 다루는 노골적인 농담이 내부자 농담으로서도 빈도수나 정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쉴새없이 오가는 것이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명백한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다. 마치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헨타이(変態, 변태)’임을 과시하며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호모네타 농담에는 일차적으로 평상시 이성애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숨어야 하는 답답함을 푸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

22) 단순히 이상한 사람(おかしい人)에 더해 변태적인 사람이라는 어감이 있다.

순히 억압된 성적인 욕구의 해소일 뿐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Allison(1994, 168-187)은 80년대에 도쿄의 호스테스 바에서 남성 고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성애적 정체성의 동성사회적인 확인(the homosocial confirmation of heterosexual identity)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남성 고객들이 다른 남성 앞에서 호스테스의 몸을 외설적으로 더듬거나, 호스테스의 외모를 두고 폄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던지는 것은 그들의 이성애적 욕망을 충족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여성인 호스테스를 매개로 하여 (이성애 남성으로 전제된) 공통의 섹슈얼리티에 기반하여 남성 동성 간의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분석을 확장시키면, 텡가라 회원들의 호모네타 농담은 ‘동성애적 정체성의 동성사회적 확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원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상’인 이성애자들과 구분되는 다름(differentness)(Goffman 1963, 5)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砂川秀樹(2015, 262-267)는 동성애자의 성적인 대화는 반드시 성욕의 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비성애적인 친밀감(우정이나 연대감)과 성애적인 친밀감이 잠재적으로 공존하는 동성애자들 간에 이성애자들의 동성 간, 혹은 이성 간의 관계성과 질적으로 다른 친밀성과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텡가라 회원 개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젠더의 표현은 다양하기 때문에, 호모네타에서 표현되는 성적 취향과 남성성의 표현(혹은 결핍)은 회원들의 실제 모습과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평소 굳이 여장에 취미가 없고 여성적이지 않은 게이들도, 게이 바 등에서의 교류에 익숙할수록 오네고토바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평소 말투로 얘기하다가도 적절한 순간에 오네고토바로 코드스위칭을 하여 웃음이나 공감을 자아낸다. 따라서 호모네타와 오네고토바에서 드러나는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동성애자의 참모습을 드러낸다고보다는 의도성을 띤 연행(performance)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일본의 주류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패러디에 가깝다. 이들이 ‘호게루’ 할 때에는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동성애)와 남성성에 대한 일탈(드랙 퀴와 트랜스젠더)이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진, 전형적인 오카마스러움을 표현한다. 즉 성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한 주류 이성애

사회의 무지와 혼동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러디하여 웃음거리로 삼으며, 주류와 다름에 기반한 연대를 확인하는 유희적인 정체성 전략인 것이다. 주류사회가 ‘변태’로 규정하는 성소수자들이 모여 자신의 ‘변태스러움’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다.

호모네타 농담이나 오네고토바, ‘호게루’하는 행위는 반드시 게이 남성들 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들에게 호의적인 ‘논케(ノケ, 동성애자 사이에서 이성애자를 지칭하는 속어)’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커밍아웃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 커밍아웃 한 사람이라도, 이성애자인 친지나 지인들 앞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은 삼갈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가 느낄 위화감 혹은 혐오감을 우려한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비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스스럼없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한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호게루’에는 우선 그 상황이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데, 연구자가 참석했을 때처럼 ‘믹스(이성애자, 특히 여성이 동석한 경우)’인 경우에는 사전에 ‘호게루’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지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대신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된 이성애자는 청중이나, 혹은 농담의 대상으로서 호모네타 농담에 끌여들여지기도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팅가라를 방문하는 동안, 몇몇 회원들은 연구자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특히 자기들의 농담에 대한 연구자의 반응을 살피는 일이 많았다. 첫 만남에서 한 회원은 연구자가 Tingara에 가입하여 무대에도 서고, 그날 저녁의 게이 파티에 따라가야 한다고 우겼다. 예기치 못한 조사의 기회인가 싶어 쭈뼛거리며 정말로 따라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그가 연구자를 쓱 훑어보더니 “응. 괜찮아. 그 가슴만 납작하게 싸매면 통하겠어.”라고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 그 말을 들은 나머지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아기가 웃으며 실은 게이 남성만이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며, 그냥 놀러보려고 한 얘기라고 알려주었다. 한번은 연습 중에 회원 하나가 항문성교를

암시하는 농담을 꺼냈다. 다른 회원들은 바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연구자는 그 농담을 알아듣는데 수 초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몇 초 동안 연구자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회원들은 더 많이 웃었고, 팔꿈치로 서로를 찌르며 “알기 쉽게 그러서 보여줘”, “그런 노골적인 짓을 했다가 달아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며 킬킬거리고 웃었다.

레인보우 퍼레이드의 뒷풀이를 위해 전세를 낸 오키나와 민요주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0대 초반 남성인 주점 주인은 아키의 소개로 그 전해의 퍼레이드 뒷풀이에도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때는 텡가라가 게이 단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뒷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회원들이 취하면서 언행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바람에 모두를 당황시켰다고 주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키를 놀렸다. 일년 후 다시 텡가라가 주점을 찾았을 때에는 주인은 동성애자들을 불편해 하는 점원에게 하루 휴가를 준 상태였다. 주인이 평소처럼 연회 도중에 산신을 연주하며 민요를 불렀다. 노래가 한 곡 끝나자, 누군가가 오키나와 술 아와모리를 가득 따라 주인에게 권했다. 술이 들어가야 노래가 잘 나온다는 오키나와 민요주점이나 민요무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 술을 받자 주인은 과장되게 방어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아니 당신들 나를 취하게 해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주점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 경우 텡가라의 회원들과 우호적인 이성애자 개인(연구자, 주점 주인) 사이에 상정되는 경험과 지식, 욕망의 간극(동성애자들의 관행에 대한 연구자의 무지, 주점 주인에 대한 상상된 욕망의 회화적인 해석)은 위협이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웃음을 통해 성적 지향이 다른 개인들 간의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호모네타 농담은 대화 당사자 간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한편, 그 차이를 두려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서로 간의 관용적이고 열린 자세가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이성애자가 동성애 상황에서 호모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믹스’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성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성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텡가라 회원들은 지리적인 공간과 인터넷 공간에서 코드스위

칭을 통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 주류사회에는 들키지 않으면서 끼리끼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식을 구사한다. 그 과정에서 친밀함, 관계성 등은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적인 표현으로 장난스럽게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적인 욕망의 표현보다는 게이라는 성적인 정체성의 확인에 가깝다.

V. 비정치적 유회에서 집단 정체성의 형성으로: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

앞서 소개한 것처럼 텡가라는 LGBT 행사인 레인보우 이벤트에서 공연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연적으로 외부의 시선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는 ‘보이기 위한’ 단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러한 단체의 대의에 동의하여 텡가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아키나 교사 A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성소수자 담론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주된 참여 동기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게이 남성들과 어울리는 안전한 사교의 공간을 원해서이다. 따라서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과 실천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는 정도나 그것을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의 개인차가 크다. 성소수자에 있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감춘 상태(closeted)와 대외적으로 드러낸 상태(come out)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놓인 사회적 맥락, 혹은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한다.

연습과 뒤풀이에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주류사회를 비판하거나 이성애 규범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은 심각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도 없으며 재미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사생활의 문제로 돌리며 재미와 유희를 마음껏 즐기는 듯한 이들과조차도 그 이면에 놓인 깊은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1990년대에 시작되고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레인보우 퍼레이드는, 그 이전까지 주류사회의 무시와 당사자들의 침묵으로 비가시화되었던 성소수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가시성의 상징이다. 1994년에서 게이리브(ゲイリブ, 게이 해방운동)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일본 최초의 도쿄 퍼레이드는 주류사회의 관심은커녕 성소수자 자신들로부터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소란스럽게 주위의 환기를 끌어 인정을 받는 것이 일본 사회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며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주축한 단체와 입장을 달리하는 단체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면서 96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4년의 공백기 이후 2000년에 부활한 퍼레이드에서는, 종전의 참석인원의 3배가 넘는 1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유명 게이 잡지사에서 제공한 플로트(float)가 등장하는 등 좀 더 폭넓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선보였다. 이후 매해는 아니지만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레인보우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의 행사는 도쿄, 오사카, 삿포로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변화가에서의 활동과 미디어 보도를 통해 주류사회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砂川秀樹 2015, 244-248).

직접 2000년대의 도쿄 퍼레이드 개최를 담당하기도 했던 砂川秀樹(2015, 248-250)는 이러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변화는 1990년대에 보급된 인터넷이 성소수자들의 정보습득과 네트워킹에 미친 영향, 그리고 1990년대 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성소수자 취미단체의 활동이 여러 해 축적된 결과를 들었다. 그 이전에 각각 고립된 존재로 지내던 성소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며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취주악, 합창, 무용 등의 취미단체는 대면적인 접촉을 쌓으며 성소수자로서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연구자가 텡가라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회원들이 모두 복수의 게이 취미활동 커뮤니티에 들어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 페이지들은 대부분 ‘게이를 위한’, ‘게이들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활동의 내용들은 스포츠, 음악, 여행, 연예인의 팬클럽 등 이런 활동을 굳이 게이들끼리 모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게 일반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에이사와 마찬가지로 굳이 게이들끼리 할 필요가 없는 취미활동을 게이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대로 이들이 게이임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의 절실함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주로 연인이나 성 파트너를 찾는 데 이용되는 게이 바와 달리, 취미단체는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활동 중에 연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게이 남성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사회적인 친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점차 ‘동성애’라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넘어서 ‘동성애자’라는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팅가라 창설 멤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키나와 문화, 특히 에이사의 열렬한 팬이었던 이들은 이미 다른 유명한 에이사 단체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레인보우 페스티벌의 공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게이들끼리 모여 에이사를 출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한편 텡가라에 참가하고 공연한다는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저울질한 끝에 단체에 가입한 것이고, 또 다른 게이 남성들이 에이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사교와 친목을 위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셈이다.

국제적인 LGBT 담론에 충실한 지식인, 운동가 중심의 성소수자 해방운동 계열 단체들이 반차별 슬로건 등을 전면에 시작한 1990년대의 LGBT 퍼레이드가 동성애자들 안에서도 큰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중단이 된 반면에, 1990년대 게이 붐을 통해 인터넷, 게이 잡지, 취미단체 등의 소비나 유희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들의 경험이 축적된 후의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행사들이 재등장했다는 사실은 정치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명시적인 구호나 담론, 투쟁 등의 직접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이 항상 가장 효과적인 형태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McLelland(2000, 222-240)는 1990년대 미디어 분석과 당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을 연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성적 실천이 게이 정체성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으나,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터져나온 LGBT 행사들은 그의 예측을 반박하는 셈이다.

팅가라의 멤버들은 개별적으로는 성소수자로서의 자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평소 주류사회와의 대면을 피하며 살아가지만, 레인보우 퍼레이드라는 행사를 통해 규범적인 이성애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성소수자 집단’으로서 주류사회에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취미활동과 유희는 정치적이다. 그러나 평소에 숨어 있던 이들이 이성애자 대중을 향해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는 퍼레이드는 연습, 게이 바 등 사적인 장소 등에서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게이 정체성을 다소 확신하게 된 회원들에게조차 ‘보임’과 ‘보이지 않음’ 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퍼레이드의 전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각 회원들의 실천은 그들의 성정체성이 균질적인 것도, 선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오히려 실천을 통해 내적인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절반의 커밍아웃

팅가라의 연습이나 참가 행사들(HIV/AIDS 관련 행사, 게이 클럽에서의 공연 등)은 대부분 성소수자들을 주관객으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의도하지 않은 노출에 대한 염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레인보우 이벤트는 이성애자 주류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대외 행사이다. 간사이 레인보우 퍼레이드 행렬은 오사카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미도스지(御堂筋)에서도 가장 변화한 구간인 나카노시마(中ノ島)에서 남바(難波) 사이를 두 시간에 걸쳐 걷게 된다. 이 행렬의 선두에서 춤을 추면서 걷게 되는 텡가라 회원들은 평소의 자신들의 안전하고 편한 위치(comfort zone)에서 벗어나 사정 없는 주류사회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2008년 10월의 화창한 일요일, 퍼레이드의 참가자들과 구경꾼들은 우메다 남쪽의 나카노시마 공원에 모여들었다. 관공서, 박물관, 사무실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의 곳곳에는 무지개색²³⁾의 풍선들이 울긋불긋

23) 6색 무지개는 성적 지향성의 다양함과 연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운동에서 사용하는 상징색이다.

다발로 묶여 걸려 있었다. ‘미도스지를 무지개빛으로!(御堂筋を虹色に)’, ‘걸으면(걷는 만큼) 바뀐다(歩けば変わる)’ 등의 슬로건 아래 드랙 퀸, 나신에 가까운 SM(사도-마조키즘) 복장의 남성들, 코스프레 전문가들, 티셔츠를 맞춰 입고 금관악기를 든 브라스믹스²⁴⁾의 회원들, 카메라를 들고 기웃거리는 외국인 등 무지개빛만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외양이나 이 장소에 모였다는 사실로 성적 지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도 참여하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리더는 연구자를 퍼레이드에 초대하면서 “이런 사람들(동성애자)로 보여도 상관없다면 말이야”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실제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행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성소수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합장소로 다가가면서 연구자는 주변에 모인 군중들이 남성들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텅가라 회원들, 구경꾼들, 사진사들까지... 그 자리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약간 이질감을 느낀 연구자가 회원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 “여자는 저밖에 없네요.” “괜찮아. 마음속으론 다 언니들(お姉おね)이니까.” 그가 눈을 찡긋하며 받았다.

이날 간토와 간사이 지부에서 모인 약 사십 명의 회원들은 개막식 행사에서 에이사 공연을 선보였다. 세 명의 반주자가 오키나와 악기인 산신(三線)을 연주하며 오키나와 민요를 부르자, 크고 작은 오키나와 북을 든 무용수들은 북을 두들기며, 테오도리(手踊り), 맨손으로 추는 춤) 무용수들은 카라테 동작을 닮은 춤사위를 선보이며, 리듬에 맞춰 ‘하이야 이야사사’ 하는 에이사 특유의 구령을 외치며 웅장하고 남성적인 춤을 관객들에게 보였다.

개막식이 끝나자 군중들은 공원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다. 행렬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졌는데, 브라스믹스가 선두에 서서 연주와 함께 행진을 하고, 그 뒤를 텅가라가 따르며 교통신호에 멈출 때마다 에이사를 선보였다. 그 다음은 드랙 퀸, 카바레 스타일이나 SM 복장을 입은 남성들, 코스프레 아티스트 등 화려한 차림의 개인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나

24)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성애자가 함께 참여하는 취주악단.

AIDS와 HIV 관련 구호가 쓰여진 깃발, 무지개빛 풍선을 들고 신나는 댄스음악에 맞춰 걸었다. 그 뒤를 거리의 행인들과 외양으로 구분되지 않는 평범한 복장의 참가자들이 따랐다. 이 행렬의 뒷부분은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참가자들을 위해 지정된 ‘카메라 프리 존’이었는데, 일부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마스크나 모자, 선글래스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백화점, 상점, 영화관 등이 늘어선 변화가는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행렬의 앞에서 북을 치고 구령을 외치며 춤을 추며 걷는 텅가라는 너무도 대담하게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회원들 모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노출할 만큼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그룹 선두만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뒤쪽은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뒤쪽에는 행진에는 참가할 수 있어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꺼리는 회원들이 섰다. 행렬을 따라 걸던 연구자는 연습에서 만난 회원 몇 명이 평상복 차림으로 인도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행진에 참여할 만큼의 자신감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행진 중인 동료에게 연호를 하고 손을 흔들었고, 행렬 안쪽의 텅가라 회원들도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 보였다.

이러한 복잡하고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퍼레이드의 양상은, 커밍아웃이 ‘한다-안한다’로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는 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이고 다중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보임-보이지 않음’의 경계가 있고, 각 개인들은 일상적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며 미세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 여러 개로 나뉜 삶의 구획들 중 새로운 하나를 넘어서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자기 탐색을 요구하는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레벨에 다다르지도 않는다. 회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기는 해도 준비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참가를 강요하거나 함께 행진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반면에 노출의 공포를 무릅쓰고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평소에 성소수자를 침묵시키는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 도전하는 ‘대항공

중’(배재호 2014, 141)이 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수행성(utopian performatives)’(배재호 2014, 148 재인용)을 실천하게 된다. 참가자들 스스로 강조하는 ‘결으면 바뀐다’라는 레인보우 퍼레이드의 슬로건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주류사회의 시선이 바뀐다는 뜻과 함께, 참가자들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외부의 시선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가진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 간사이 지부의 리더는 퍼레이드에 몇 해 동안 참가한 자신의 경험을 가리켜 ‘(양파처럼) 껍질이 한껍질 한껍질 벗겨지는(ずる剥けズルムケ)’이라는 표현을 썼다. 퍼레이드 참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성소수자로서의 자아가 표면을 둘러싼 껍질을 벗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걷는다는 그 경험 자체가 일본 사회에서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게이, 혹은 LGBT 성소수자라는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들을 정치적 실천으로 이끄는 중요한 장치(apparatus)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죽은 이들을 위한 춤 에이사: 새로운 ‘우리’의 형성

앞서 에이사라는 춤은 오키나와의 촌락에서 조상숭배 의례의 일부로 발달한 춤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원래 지연, 혈연공동체로서 함께 조상을 모시는 ‘우리’라는 마을 공동체의식의 강화라는 에이사의 주된 기능이 오키나와의 전통의례와 무관한 맥락에서 연행되면서 혈연, 지연을 벗어난 다른 방식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Cho 2014, 279-282). 레인보우 퍼레이드에서 텡가라의 에이사도 원래의 에이사의 연행의 맥락에서는 벗어났지만 성소수자로서의 ‘우리’라는 공동체성의 매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퍼레이드에서 참여한 한 회원은 걷는 도중에 게이 남성으로서 자신의 신산한 삶, 즉 사람들의 경멸, 친구, 연인의 배신, 공갈협박, AIDS로 인한 지인들의 죽음 등이 머릿속을 스쳐지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

은 평소의 에이사 복장 대신 HIV와 AIDS 예방운동의 상징색인 적색과 백색의 초란(長らん 남학생의 교복코트 형태를 띤 응원복)을 입고 깃발을 들고 걸었는데, 결국 흥이 겨워 그 응원복 차림으로 텡가라 회원들과 함께 에이사를 추었다. 이 남성 역시 자신이 행진 내내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나왔다고 포스팅에 썼다.

텡가라의 모든 회원들이 사자를 위한 춤이라는 에이사의 유래를 알거나, 그것을 자신들의 연행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모의 감정들은 마치 에이사의 본래 의미가 그러하듯, 흥겨운 춤 속에서 죽은 이들을 공동으로 추모함으로써 그 조상, 혹은 사자(死者)와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속될 가족의 전망이 없이 외따로 떨어진 사람들, 에이즈로 인해 죽은 사람들, 외로움이나 자기부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거나 살아 있어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추모하며, 혈연이나 지연, 종족성에 바탕한 것이 아닌 공통된 소외의 경험에 기반한 ‘우리’를 만드는 경험에 참여하고, ‘게이’ 혹은 ‘성소수자’라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체화하게 된다.

VI. 결론

지금까지 텡가라의 사례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용 동호회라는 취미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성소수자로서의 집단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논지를 정리하면서 이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조사기간 중의 텡가라의 비가시성, 텡가라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려던 아키의 노력은, 역으로 일본 사회에서 규범적인 이성애의 압력이 암묵적이고도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텡가라의 회원들은 애초에 성소수자로서의 뚜렷한 정치의식 없이, 에이사에 대한 흥미보다도 다른 게이 남성들을 만나기 위한 사교의 장으로 텡가라에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한 코

드스위칭을 사용해서 비가시성과 가시성 사이를 넘나들며 안전한 소수자의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확보한다. 이 논문의 주제에서는 벗어나지만, 직접적인 차별과 억압 대신에 침묵과 동화의 압력을 통한 암묵적인 억압, 소수자들의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이의 긴장 등은 아이누인, 오키나와인, 재일 코리언, 부라쿠민 등의 일본의 동아시아계 소수자들의 경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Cho 2014, 74-80; 291-292). 이 지점은 종족, 계급, 성 등의 축을 넘어 전후 일본 주류사회의 포섭과 배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들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이들은 주류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패러디한 언행을 구사하며, 이를 통해 동성애적인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감을 확인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성적 지향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동성애 혐오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소수자들의 ‘변태적 언행’, 즉 일탈성이 성소수자에게 본질적인 병리성이 아니라, 오히려 주류사회의 규범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적 수행성(performative)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레인보우 퍼레이드는 텡가라의 남성들이 신생하는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복잡하고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퍼레이드는 각자 다른 지점에 와 있는 회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자신감을 시험하는 장인 동시에, 자신을 주류사회의 시선에 노출시킴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반드시 정치적 구호나 저항적인 집단행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치성을 띠는 행동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이 점차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류사회의 인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희와 친목활동이 가지는 정치성은 최근 일본의 시위문화에서 드러나는 ‘재미의 정치’(박지환 2012, 521-522)의 가능성과 한계와 연관지어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접근하기 어려운 조사대상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짧은 조사기간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정체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연구자의 젠더나 섹슈얼리티 연구의 경험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에이사라는 춤의 장르적 특성과 성소수자들의 실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알아내지 못한 것은 오키나와 전통예능에 대한 연구로서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처우나 성소수자들의 대응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구미 사회와 달리 기독교의 역사가 짧고, 전근대 시기 직접적인 동성애 억압의 부재, 유교 윤리에 기반한 집단 중심의 가족, 직장규범과 세간의 암묵적인 압력이라는 변수는 일본 사회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LGBT 담론이 역사적인 이질성과 대항적 정치운동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큰 저항 없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차별금지법이나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격돌, 강력한 혐오표현과 반대운동,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차별발언 등 성소수자와 혐오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현대사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각 사회의 성정치나 소수자 정치에 미친 영향, 동성애 혐오와 관용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적 기제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박지환 (2012). “불안정과 재미의 정치: 2000년대 일본 시위문화와 탈원전운동.” 『인문과학연구』, 35권, pp. 501-526.
- 배재호 (2014). “게이 남성 합창단의 문화정치학.” 『여성이론』, 제31호, pp. 140-161.
- 애너매리 야고스 (2012). 『퀴어이론 입문』. 박이은실 역. 여이연.
- Abe, H. (2010). *Queer Japanese: Gender and Sexual Identities through Linguistic Practi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llison, A. (1994). *Nightwork: Sexuality, Pleasure, and Corporate Masculinity in a Tokyo Hostess Club*.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 S. (2014). *The Politics of Difference and Authenticity in the Practice of Okinawan Dance and Music in Osaka, Japan. Doctoral Dissert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Dasgupta, R. (2005). “Salarymen Doing Straight: Heterosexual Men and the Dynamics of Gender Conformity.” Mark J.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enders and Sexual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pp. 168-182.
- Edwards, W. (1989). *Modern Japan through Its Weddings: Gender, Person, and Society in Ritual Portrayal*.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Lunsing, W. (2001). *Beyond Common Sense: Sexuality and Gender in Contemporary Japan*. London: Kegan Paul.
- _____ (2005a). “The Politics of Okama and Onabe: Uses and Abuses of Terminology Regarding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Mark J.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enders and Sexual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pp. 81-95.
- _____ (2005b). “LGBT Rights in Japan.”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Vol. 17, pp. 143-148.
- McLelland, M. (2000). *Male Homosexuality in Modern Japan: Cultural Myths and Social Realities*. Richmond, UK: Curzon.

- _____ (2005). "Salarymen Doing Queer: Gay Men and the Heterosexual Public Sphere." Mark J.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ressors and Sexual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pp. 96-110.
- McLelland, M. and K. Suganuma (2010). "Sexual Minorities and Human Rights in Japan: An Historical Perspective." Phil C. W. Chan (ed).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Since Stonewall: Progress and Stalemat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London: Routledge, pp. 196-210.
- McLelland, M. and R. Dasgupta (2005). "Introduction." Mark J.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ressors and Sexual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pp. 1-14.
- McLelland, M., K. Suganuma and J. Welker (2007a). "Introduction: re(claiming) Japan's queer past." M. McLelland, K. Suganuma, and J. Welker (eds.). *Queer Voices from Japan*. Lanham MD, USA: Lexington Books, pp. 1-29.
- _____ (2007b). "Appendix: Timeline of Queer Japan." M. McLelland, K. Suganuma, and J. Welker (eds.). *Queer Voices from Japan*. Lanham MD, USA: Lexington Books, pp. 317-328.
- Pflugfelder, G. (2000). *Cartographies of Desire: Male-male Sexuality in Japanese Discourse 1600-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erson, J. (2006). "Loochoo Beat(s): Music In and Out of Okinawa." M. Allen and R. Sakamoto (eds.). *Popular Culture, Globalization and Japan*. London: Routledge, pp. 202-220.
- Robertson (1998). *Takarazuka: Sexual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in Modern Japa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nald, R. and A. Alexy (2011). *Home and Family in Japan: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xon, UK: Routledge.
- Summerhawk, B., C. McMahill and D. McDonald (1998). *Queer Japan: Personal Stories of Japanese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sexuals*. Norwich: New Victoria Publishers.
- 砂川秀樹 (2007). "カミングアウトを考えているあなたへ, カミングアウトを受けたあなたへ." RIOJI and 砂川秀樹 (編). 『カミング・アウト・レターズ: 子供と親・生徒と教師の往復書簡』. 東京: 太郎次郎社, pp. 195-215.
- _____ (2010). "エスニシティとセクシュアリティをめぐる差異と共同性の交錯: ゲイのエイサグループにおける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 *The Japanese Assembly*

For the Study of Sex Proceedings. Vol. 22. No. 1, pp. 12-23.

- _____ (2015). 『新宿二丁目の文化人類學: ゲイ・コミュニティから都市をまなざす』.
東京: 太郎次郎エディタス.
- RIOJI and 砂川秀樹 (2007). 『カミング・アウト・レターズ: 子供と親・生徒と教師の往復書簡』. 東京: 太郎次郎社.

2. 기타

- “那覇市, 性的少数者支援宣言へ 全国2例目.” 『琉球新報』 2015年 6月 19日.
- 安藤健二 (2015). “世田谷区も同性パートナー認定開始 7組に受領証‘どんどん広まって欲しい.’” http://www.huffingtonpost.jp/2015/11/05/setagaya-partnership_n_8476616.html. (2016년 1월 2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6년 02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2월 29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3월 1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1 (2016)

The Political Practice through Play and Transformation of Collective Gay Identity in an Okinawan Dance Coterie Group in Osaka, Japan

Sumi Cho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In this paper, I explore the politics of sexual difference and emergent gay subjectivities by examining the case of an Okinawan dance coterie group of gay men. This group's nearly total invisibility paradoxically reveals how strong the implicit heteronormative pressure on sexual minorities is, despite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and obvious oppression of non-conforming sexualities and gender in Japanese history, and the abundance and seeming freedom of non-normative sexual and gender expressions in Japanese entertainment and media.

Tingāra's men, predominantly ethnic Japanese, participate in the club's activities primarily to socialize with other gay men. As "discreditable" minority whose stigma is not obvious, they use code-switching of various degrees, from heterosexual male mannerisms to campy expression of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In doing so they navigate across domains of visibility and invisibility. Spatial distinctions, physical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virtual (online and offline), play an important role in such navigation to create a communal space for them, while rendering them invisible to (and thus protected from) mainstream society, safely hidden in plain sight. They playfully appropriate okama (a conflation of homosexual and transgender) stereotypes in self-mocking homoneta ("homo stuff")

jokes, to create bonds between members, what I call a homosocial confirmation of homosexual identity and also to build alliances across sexuality with knowing, supportive heterosexual individuals.

In the Kansai Rainbow Parade, Osaka's biggest LGBT event, Tingāra walks and dances as part of the procession. Their participation reveals how complex and uncertain individual members' attitudes are regarding the increasing public presence of self-identified gay males, and the precarious position they occupy in "coming out" halfway. The original meaning of eisā as the dance for the dead/ancestors is unexpectedly reenacted when members find in the parade an opportunity to mourn for and honor anonymous gay men who suffered from societal negation and self-alienation. I argue that despite individual uncertainties and ambivalences, such experience of the collective performance of eisā and their interpretations of it are transformative for them, towards the collective gay identity that is in the making.

▪ Key words: Sexual Politics, Identity, Play, Code Switching, Visibility and Invisibility